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조중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01호 [주제 제25344호] 주제 105 (2016)년 7월 19일 (화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애국적소행을 발휘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애국적소행을 발휘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당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캔로써 밟았을 때 일념밀에 헌신하는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경성군 충암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에 대한 현신적복무증진을 지니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지낸에 농사를 잘 지어 중산한 양곡을 애국미로 헌납하였다.

총성의 70일전투기 모란봉구역 북대원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에 대한 현신적복무증진을 지니고 주민들에게 대한 용사활동을 펼쳤던 당시에 기상들에서 축축하였던 땅을 모아 나라에 바치었다.

온천군 일석협동농장 제3작업반 농장원 김길설은 나라의 살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많은 농사일을 책임져으로 하였으며 많은 일과를 애국미로 기증하였다.

남포시 송해전부 직장장 박명수, 와우도구역 교원체육교습소 지도교원 김세현은 말은 혁명파 수행에 헌신하는 속에서 온 가족의 성과를 담아 여러차례에 국미를 헌납하여 집단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다.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앞장서온 남포시 고령봉원 토종자 청약은 절약이 애국이라는 숭고한 공민적직각을 지니고 가정살립장을 이용해 일상에서 온 가족의 생활과 풍랑파 탐방과 함께 일, 남포시검찰소 문서원 업경성, 남포시부역판리국 도통자 김길진도 많은 애꾸를 나

라에 비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영광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과 국주의를 실상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 한동 다 바쳐 잘 열의에 넘쳐있다.

청주시 수남구역 주목통 78인민반 김영월,

로항구역 청총3동 25인민반 김영철, 신암구역

교통 40인민반 박금순은 조국의 부강번영에 기정의 행복도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나라살림살이에 보탬을 주는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였다.

언제나 나라의 살독을 먼저 생각하며 애국의 열정으로 가슴 뜰데고 있는 페선사학산무역회사

원로자들과 함께 일, 남포시검찰소 문서원 업경성, 남

포시부역판리국 도통자 김길진도 많은 애꾸를 나

라에 비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영광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과 국주의를 실상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 한동 다 바쳐 잘 열의에 넘쳐있다.

준비위원회는 유럽지역의 조선인민과의 원장 크리스토프 블란드그린, 단미크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원장 및 문화체육교류조 모세 아르헨티나 위원장 헤. 아. 베르트로브, 스웨덴에 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크리스토프 블란드그린, 단미크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원장 안데르스 크리스센센, 풍동서기장으로 영국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더모트 하드슨과 스위스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마르틴 피체르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 결성과 관련한 공보문을 발표되었다.

\* \* \*

##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준비위원회

여러 지역에서 결성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유럽

지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들도 프랑스 조선친선협회 위원장 기 뉴프로, 조선인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원장 및 문화체육교류조 모세 아르헨티나 위원장 헤. 아. 베

르트로브, 스웨덴에 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크리스토프 블란드그린, 단미크로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원장 안데르스 크리스센센, 풍동서기

장으로 영국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더모트 하드슨과 스위스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마르틴 피체르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 결성과 관련한 공보문을 발표되었다.

\* \* \*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아메리카지역준비위원회 결성식이 빠루의 빠마에서 친영되었다.

결성식 장정 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폐우의 여러 정당, 단체 인사들과

세계사상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원

선 및 평대성단체 인사들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세계사상가족연대

김정은동지께서는 전통적인 태양상으로

높이 우대되신 5등을 대로 운행사들을 끊길게 경축할것이라고

직지하였다.

공보문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에서

와 김정일동지에서 주체의 가치,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조

국을 불폐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

시키시였으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

일과 온 세계의 자주주권을 위하여 모

든 것을 치자신에 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단수명들의 사상

과 위엄을 훌륭히 전해나가시는데

더하여 강조하였다.

공보문은 지난해 10월 정양에서

세계 각국의 조선인민과의 원선 및

평대성단체 대표들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세계사상가족연대

김정은동지께서는 전통적인 태양상으로

높이 우대되신 5등을 대로 운행

사람들을 끊길게 경축할것이라고

직지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은 수명, 당, 대중이 하늘로 글

제 물질 정치사상강국이며 세계적인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이다.

미제와 남조선인민들은 조선이 해

으로 세계를 『위협』한다고 기소하고

온갖 제재와 압력을 가하는 등 반공

국과 대립하는 오스팔도를 라비라도,

김정일평도자하고 브리질위원회 위

원장 아델리누리에이루를, 서기장으로

자유로운동맹을 위한 빠루조족족

민운동 위원장 애스투아르도 마르티네스 베레스를, 집행서기로 빠루조선

친선문화협회 서기장 유리 카스프로

로메로를 선출하였다.

준비위원회는 2017년 백두산위인

칭송대회를 앞두고 나라의 드립도 없이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음을 알렸다.

오늘 조선인민이 세계가 우러러보

는 위대한 민족으로 조선이 자주, 자

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면발

행을 청중하는 나래로 운정문화행사

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또한 유럽지역의 인민들이 미국을

길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 창건 하시고 이어서 오늘 김정은동지께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원히 불멸의 사회주의의 보루로 남아있을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세련된 명도를 받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결성식에서는 선언문이 제작되었다.

선언문은 수십성상 혈전만리를 헤치며 민족해방, 민족해방의 세계사적 모범을 창조하신 김일성동지의 영광상에서 조선인민의 형복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선군혁명의 길에 한정성을 바치신 김정일각자께서는 영원한 태양, 백두산칠세워인으로 민족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강조하였다.

선언문은 이에따라 지역마다 김정일동지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세계 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

결성식에서는 김정일동지의 형복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선군혁명의 길에 한정성을 바치신 김정일각자께서는 영원한 태양, 백두산칠세워인으로 민족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강조하였다.

선언문은 이에따라 세계사상가족연대에서 김정일동지께서는 전통적인 태양상으로

높이 우대되신 5등을 대로 운행사들을

뜻을 전해나가시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조선은 수소란까지 보유한 핵강국, 자체의 원자기 기술로 위성을 창출하는 과학기술강국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은 수명, 당, 대중이 하늘로 글

제 물질 정치사상강국이며 세계적인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이다.

미국은 절대로 조선을 눌러줄 수도

다침수도 없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오늘 조선인민이 세계가 우러러보는 위대한 민족으로 조선이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면발행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은 수소란까지 보유한 핵강국, 자체의 원자기 기술로 위성을 창출하는 과학기술강국이다.

그는 학원의 교육원들은 원수모를

다침한 시대에 조선인민에게 드립도 없이

준비위원회를 창설해온 김정일동지의 영광을

창출하였다.

그는 학원의 교육원들은 원수모를

다침한 시대에 조선인민에게 드립도 없이

준비위원회를 창설해온 김정일동지의 영광을

창출하였다.

그는 학원의 교육원들은 원수모를

다침한 시대에 조선인민에게 드립도 없이

준비위원회를 창설해온 김정일동지의 영광을

창출하였다.

그는 학원의 교육원들은 원수모를

다침한 시대에 조선인민에게 드립도 없이

준비위원회를 창설해온 김정일동지의 영광을

창출하였다.

그는 학원의 교육원들은 원수모를

다침한 시대에 조선인민에게 드립도 없이

준비위원회를 창설해온 김정일동지의 영광을

창출하였다.

그는 학원의 교육원들은 원수모를

다침한 시대에 조선인민에게 드립도 없이

준비위원회를 창설해온 김정일동지의 영광을

창출하였다.

그는 학원의 교육원들은 원수모를

다침한 시대에 조선인민에게 드립도 없이

준비위원회를 창설해온 김정일동지의 영광을

창출하였다.

그는 학원의 교육원들은 원수모를



# 중등교육환경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건설된 원아들의 행복의 요람

평 양 중 등 학 원

준 공 식

진 행



# 로동자영웅의 참다운 동지가 되여준 아름다운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본받자

《로동신문》 7월 11일부에 실친 기사 《로동당시대의 불사조》에 대한 각계 총의 반향

당보에 실린 기사 《로동당시대의 불사조》가 그처럼 거대한 갑작변파와 견인력으로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는 것은 비단 한 인간의 깊숙은 인생 행로에 대한 광동에 문단이 아니다.

천만 뜻밖의 불행 앞에서 생의 마지막 불꽃에서 스러져 가던 한 인간의 심장속에 소생의 불씨를 심어주고 그 불씨가 신령파의 지지 세력으로 퍼져길로 타번지도 뜯어온 정파 사망을 아찔없이 부어준 숭고한 의리와 동지애의 세계가 없었다면 로동당시대의 불사조로 불리우는 로동자영웅이 어떻게 이 땅에 떠나날 수 있었으랴.

하기에 독자들은 위대한 시대가 낳은 또 한명의 인간전형과 함께 그의 두드러기와 되여주고 불굴의 정신력을 버릴수록 아름다운 인간들의 모습도 그토록 열렬히 사랑하며 그 고결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적극 따라주며 숭고한 의리와 동지애를 찾았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평시하였다.

「우리 인민이 지니고 있는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는 아직 역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고상하고 숭고한 의리와 동지애입니다.」

기사 《로동당시대의 불사조》를 읽고난 수많은 독자들이 한 걸같이 감동에 겨워 되새겨보는 기사의 한 대목이다.

그것은 불구의 물이 된 남편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려 했던 그 순간 그의 헌신을 향한 두드러미 부르짖던 안해 오금선녀성의 목소리이다.

『도대체 누가 죽었다는거에

요. 여기서 심장이 뛰고있지 않아요. 여기에 당원증이 있지 않아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며 면 리평규동무의 넓을 억척같이 불풀어세운 그 목소리는 어이하여 사람들의 가슴을 그리고 뜨겁게 파고드는것인가.

원간시 중동 9511번에서 사는 특류영예군인 신흥철동무는 기사를 읽은 자리에서 자기의 심증을 이렇게 놀라웠다.

몇 해전 군사임무수행 중 뜻밖의 정황으로 물을 다치고 하반신이 바뀌면서 척추를 치료해온 그의 심정 역시 려온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의 친구들은 그의 운명이 파연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전 만사랑의 축복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를 때에도,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오른 리평규

영웅과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서로 나서 서로 듣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대 가정의 물려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서

제되었을 때 나의 심정 역시 려온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의 친구들은 그의 운명이 파연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전 만사랑의 축복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를 때에도,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오른 리평규

영웅과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서로 나서 서로 듣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대 가정의 물려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서

제되었을 때 나의 심정 역시 려온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의 친구들은 그의 운명이 파연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전 만사랑의 축복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를 때에도,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오른 리평규

영웅과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서로 나서 서로 듣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대 가정의 물려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서

제되었을 때 나의 심정 역시 려온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의 친구들은 그의 운명이 파연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전 만사랑의 축복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를 때에도,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오른 리평규

영웅과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서로 나서 서로 듣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대 가정의 물려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서

제되었을 때 나의 심정 역시 려온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의 친구들은 그의 운명이 파연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전 만사랑의 축복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를 때에도,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오른 리평규

영웅과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서로 나서 서로 듣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대 가정의 물려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서

제되었을 때 나의 심정 역시 려온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의 친구들은 그의 운명이 파연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전 만사랑의 축복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를 때에도,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오른 리평규

영웅과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서로 나서 서로 듣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대 가정의 물려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서

제되었을 때 나의 심정 역시 려온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의 친구들은 그의 운명이 파연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전 만사랑의 축복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를 때에도,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오른 리평규

영웅과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서로 나서 서로 듣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대 가정의 물려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서

제되었을 때 나의 심정 역시 려온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의 친구들은 그의 운명이 파연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전 만사랑의 축복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를 때에도,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오른 리평규

영웅과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서로 나서 서로 듣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대 가정의 물려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서

제되었을 때 나의 심정 역시 려온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의 친구들은 그의 운명이 파연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전 만사랑의 축복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를 때에도,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오른 리평규

영웅과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서로 나서 서로 듣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대 가정의 물려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서

제되었을 때 나의 심정 역시 려온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의 친구들은 그의 운명이 파연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전 만사랑의 축복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를 때에도,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오른 리평규

영웅과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서로 나서 서로 듣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대 가정의 물려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서

제되었을 때 나의 심정 역시 려온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의 친구들은 그의 운명이 파연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전 만사랑의 축복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를 때에도,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오른 리평규

영웅과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서로 나서 서로 듣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대 가정의 물려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서

제되었을 때 나의 심정 역시 려온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의 친구들은 그의 운명이 파연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전 만사랑의 축복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를 때에도,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오른 리평규

영웅과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서로 나서 서로 듣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대 가정의 물려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서

제되었을 때 나의 심정 역시 려온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의 친구들은 그의 운명이 파연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전 만사랑의 축복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를 때에도,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오른 리평규

영웅과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서로 나서 서로 듣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대 가정의 물려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서

제되었을 때 나의 심정 역시 려온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의 친구들은 그의 운명이 파연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전 만사랑의 축복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를 때에도,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오른 리평규

영웅과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서로 나서 서로 듣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대 가정의 물려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서

제되었을 때 나의 심정 역시 려온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의 친구들은 그의 운명이 파연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전 만사랑의 축복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를 때에도,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오른 리평규

영웅과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서로 나서 서로 듣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대 가정의 물려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서

제되었을 때 나의 심정 역시 려온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의 친구들은 그의 운명이 파연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전 만사랑의 축복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를 때에도,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오른 리평규

영웅과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서로 나서 서로 듣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대 가정의 물려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서

제되었을 때 나의 심정 역시 려온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의 친구들은 그의 운명이 파연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전 만사랑의 축복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를 때에도,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오른 리평규

영웅과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서로 나서 서로 듣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대 가정의 물려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서

제되었을 때 나의 심정 역시 려온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의 친구들은 그의 운명이 파연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전 만사랑의 축복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를 때에도,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오른 리평규

영웅과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서로 나서 서로 듣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대 가정의 물려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서

제되었을 때 나의 심정 역시 려온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의 친구들은 그의 운명이 파연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전 만사랑의 축복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를 때에도,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오른 리평규

영웅과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서로 나서 서로 듣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대 가정의 물려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서

제되었을 때 나의 심정 역시 려온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의 친구들은 그의 운명이 파연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전 만사랑의 축복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를 때에도,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오른 리평규

영웅과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서로 나서 서로 듣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대 가정의 물려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서

제되었을 때 나의 심정 역시 려온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의 친구들은 그의 운명이 파연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전 만사랑의 축복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를 때에도,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오른 리평규

영웅과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서로 나서 서로 듣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대 가정의 물려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서

제되었을 때 나의 심정 역시 려온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의 친구들은 그의 운명이 파연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전 만사랑의 축복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를 때에도,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오른 리평규

영웅과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서로 나서 서로 듣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대 가정의 물려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서

제되었을 때 나의 심정 역시 려온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의 친구들은 그의 운명이 파연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전 만사랑의 축복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를 때에도,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오른 리평규

영웅과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서로 나서 서로 듣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대 가정의 물려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서

제되었을 때 나의 심정 역시 려온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의 친구들은 그의 운명이 파연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전 만사랑의 축복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를 때에도,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오른 리평규

영웅과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서로 나서 서로 듣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대 가정의 물려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서

제되었을 때 나의 심정 역시 려온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의 친구들은 그의 운명이 파연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전 만사랑의 축복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를 때에도,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오른 리평규

영웅과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서로 나서 서로 듣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대 가정의 물려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서

제되었을 때 나의 심정 역시 려온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의 친구들은 그의 운명이 파연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전 만사랑의 축복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를 때에도,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오른 리평규

영웅과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서로 나서 서로 듣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대 가정의 물려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서

제되었을 때 나의 심정 역시 려온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의 친구들은 그의 운명이 파연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전 만사랑의 축복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를 때에도,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오른 리평규

영웅과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서로 나서 서로 듣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대 가정의 물려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서

제되었을 때 나의 심정 역시 려온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의 친구들은 그의 운명이 파연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전 만사랑의 축복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를 때에도,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오른 리평규

영웅과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서로 나서 서로 듣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대 가정의 물려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서

제되었을 때 나의 심정 역시 려온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의 친구들은 그의 운명이 파연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전 만사랑의 축복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를 때에도,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오른 리평규

영웅과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서로 나서 서로 듣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대 가정의 물려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서

제되었을 때 나의 심정 역시 려온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의 친구들은 그의 운명이 파연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전 만사랑의 축복속에 행복한 가

#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을 영원히 잊지 말자!

## 나가자 전선으로! 인민의 조국을 목숨바쳐 지키자!

전쟁의 첫 시기 매일 평균 2만 4천 여명, 최고 5만 명의 청년들 전선 탄원

위대한 전승의 7·27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때전때승의 강철의 망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따라 산악같이 일어서 3년간의 가발처럼 전승절을 맞으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 목숨과 땀비우며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지키고 귀중한 한 걸음도 없으면서도 영원히 잊지 못할 위대한 전승, 승리의 위대한 전통을 마련한 우리 군대와 조선인민의 기개와 위용을 떠올리며 전승의 촉로 인민의 위훈의 자자속을 다시금 새겨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복도일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하여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격파, 전파, 해방국도당의 무력침공을 반대하여 전쟁한 정의의 전쟁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38° 선전역에서 끌어없는 무장도발 등을 일삼던 남강도 미제침략자들과 리승만傀儡로 당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이 전쟁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준엄한 시련이었다. 일제식 민족통치기반에서 해방된 5년도 안되는 우리 인민이였던 창전편지 2년도 되지 않았던 우리 공화국이었다. 인민군대가 정규무력으로 개전전제 두해박에 안되었다.

청소년 우리 공화국과 인민을 요양기에 절어살기려고 남강도 미제는 전대미문의 침략무력을 불태우고 공화국의 기치밑에 조국을 풍물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미지막의 힘을 쏟아온다.

포타시 식민지로의 영에 물위집어쓰는가 아니면 민주전국의 주인으로서의 복된 삶을 누려가는가 하는 운명선택의 준엄한 그 시작 우리 인민의 가슴 속에 굳게 간직된 것은

고 덧붙였다.

우리 원수님의 사랑과 응!

정말 그랬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겨 찾는 파자조각대에

도 우리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응성이 짓들어있는풀 사람들을 이어다 다 알라.

### 인민들이 좋아하는 특색 있는 봉사 청류관에서

고모습을 기쁜 마음으로 바

라보던 기사장 전혜숙동무는 이

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언제나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둘고 고개 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1·2월에 맛있는 어려가지 사랑

조각, 파자조각을 만들어 인민

에게 봉사 할 때 대 한 귀중한

카르지실을 주시며 몸소 어려

자료들도 보내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 높이

끌고 인민봉사총국에 비롯한 해

리모양파자조각을 구려운 달아

달라고 말하는것이었다. 중구역

봉승동에서 살다온 그로인은

침친 청류관국수를 먹으려 았다

가 하도 특색이 있어 파자조각

한개를 사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받고 좋아서 손뼉을 치던 손

자매가 하는 말이 디마운에는 많

가 오르면 그때로부터 어언 63년이 흘렀다.

반세기를 험난한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전쟁의 3년간을 두고두고 잊지 못한다.

전승절을 맞으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 목숨과 땀비우며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지키고 귀중한 한 걸음도 없으면서도 영원히 잊지 못할 위대한 전승, 승리의 위대한 전통을 마련한 우리 군대와 조선인민의 기개와 위용을 떠올리며 전승의 촉로 인민의 위훈의 자자속을 다시금 새겨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여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천식 같은 믿음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이 시작되자 급변하는 군사정치체제를 멍청하게 통찰하고 1950년 6월 26일 전제 인민파 인민군장병들을 전쟁 승리에 투罄으로 조직동원을 하시기 위해『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역사적인 방송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인 방송연설은 우리 나라에 수립된 조선인민은 우리 나라에 수립된 인민주주의제도와 민주개혁의 성과들을伸手하여 남강도 미제침략자들과 리승만傀儡로 당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이 전쟁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준엄한 시련이었다. 일제식 민족통치기반에서 해방된 5년도 안되는 우리 인민이였던 창전편지 2년도 되지 않았던 우리 공화국이었다. 인민군대가 정규무력으로 개전전제 두해박에 안되었다.

청소년 우리 공화국과 인민을 요양기에 절어살기려고 남강도 미제는 전대미문의 침략무력을 불태우고 공화국의 행복을 원하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그들은 조선인민의 영명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 드리는 만

## 전민족적인 대회합의 개최는 시대와 겨레의 요구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인인 사람들의 현석회의 준비사업이 절실히 이어지고 있다.

조국통일 일흔한들을 계기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함에 대한 우리의 계획은 날이 갈수록 내외의 온 겨레의 심금을 털어갈수록 전민족적인 지지율을 높여나가고 있다.

지난 6월 2일 14일 평양에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성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북측준비위원회가 결성된 후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현석회의 성과적 개최를 위한 협의체 즉 역할준비위원회들이 속속 결성되고 있다. 이러한 힘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인인 사람들의 현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에서는 남조선의 당국, 정당, 단체 및 개인인 사람들에게 공개편지를 보내고 있다. 지금 남조선의 도처에서는 우리의 계획을 열렬히 지지환영하면서 이를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청호의 기회』로 삼고 『8월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을 요구하는 각계 대표들의 투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하기 위한 우리와 종대한 밤기가 내외의 각계각층 동포们的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너무도 응당한 것이다.

한파를 나는 동족끼리 모여앉아 민족문제를 허심한회하게 흐르고 있는 것은 지난해 지역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서 여기에 그 누가 나가거나 한다.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도 다른 아닌 전체 조선민족이다.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함에 대한 우리의 계획은 나와의 통일대회합을 남에게 의존해서는 아니나마 우리 민족자신이 책임지고 온 겨레의 단합과 자주통일을 민대하면서 북남관계를 파괴로 불어가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발달세력인 책통은 최첨정에 이르렀다. 미국은 전조선반도를 정략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계획을 틀어쥐기 위해 남조선당국을 돌격대로 내세워 우리 민족내부에 해기를 막고 북남대결을 더욱 부추기면서 정세를 정립하는데까지 북아시아고고했다. 남조선피의들은 미국의 전제권란에는 복목적으로 주종하면서 동족의 정당한 통일대회합에 기여한 그것은 분열의 장벽을 하루빨리 허물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온 겨레의 드높은 의지와 노력이다. 조국통일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것이 아니라며

일은 등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더없이 의의로 계기로 될 것이다.

지금 조국통일위업을 가로막는 내외 분열주의세력의 책통이 최후방악적인 단계에 이르고 있는 때에 해내외에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저지하는 향성이 높아져 유통나오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무생열기가 트집게 달이 오르는 것은 우리와 애국애족적인 제세의 심금을 털어갈수록 전민족적인 지지율을 높여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민족주의 대단결로 부탁지는 난관을 헤치며 겨레의 속чин인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편성이이다. 이번에 우리 공화국이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 것을 말하고 그 실현에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도 온 겨레의 의사와 지향을 모아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려는 애국애족의 입장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조국통일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인것만은 철저히 자주적장성을 풀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도 다른 아닌 전체 조선민족이다.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함에 대한 우리의 계획은 나와의 통일대회합을 남에게 의존해서는 아니나마 우리 민족자신이 책임지고 온 겨레의 단합과 자주통일을 민대하면서 북남관계를 파괴로 불어가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발달세력인 책통은 최첨정에 이르렀다. 미국은 전조선반도를 정략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계획을 틀어쥐기 위해 남조선당국을 돌격대로 내세워 우리 민족내부에 해기를 막고 북남대결을 더욱 부추기면서 정세를 정립하는데까지 북아시아고고했다. 남조선피의들은 미국의 전제권란에는 복목적으로 주종하면서 동족의 정당한 통일대회합에 기여한 그것은 분열의 장벽을 하루빨리 허물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온 겨레의 드높은 의지와 노력이다. 조국통일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것이 아니라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

다.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나니며 외세에 구걸하는 것은 민족의 존엄과 피의를 팔아먹는 막국태족행위이며 반통일행위이다.

승리를 해도 자기 민족을 송배하고 민족의 힘을 믿으며 통일론의 끝에서도 자기 민족과 하겠다는 무질한 지지율은 난관에서에서에서 국복 못난판이 있을 수 있다.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은 민족내단결 사상의 빛나는 구현이다.

우리 공화국은 조국의 자주적통일에 기여하는 사람에게 그가 누구이든, 무엇을 하든 판계없이 피거물들의 원칙에서 대하고 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나가는 힘을 임관하게 견지하고 있다. 진정으로 나나를 사랑하고 민족의 운명을 적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상과 세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 것을 말하고 그 실현에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도 온 겨레의 의사와 지향을 모아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려는 애국애족의 입장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개최는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와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우리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을 민대하면서 북남관계를 파괴로 불어가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발달세력인 책통은 최첨정에 이르렀다. 미국은 전조선반도를 정략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계획을 틀어쥐기 위해 남조선당국을 돌격대로 내세워 우리 민족내부에 해기를 막고 북남대결을 더욱 부추기면서 정세를 정립하는데까지 북아시아고고했다. 남조선피의들은 미국의 전제권란에는 복목적으로 주종하면서 동족의 정당한 통일대회합에 기여한 그것은 분열의 장벽을 하루빨리 허물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온 겨레의 드높은 의지와 노력이다. 조국통일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것이 아니라며

피의당국의 이 반민족적인 대결당동은 해내외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조선반도에 긴장완화와 평화의 기운이 짓기는커녕 어느 시각에 핵버섯구름이 치솟을지 모를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는 엄중한 사태는 온 겨레로 하여금 일치단결하여 미국의 침략적간섭과 그에 이루보증하며 민족의 피의를 막아먹는 미국반역의 무리를 철저히 제압해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해국과 미국, 평화와 전쟁,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척도이다.

남조선당국이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대신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개최를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으로 전해나서면서 외세와의 『한국타임즈』 조성에 계속 탐리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그러한 망동은 대형정착의 철학과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남조선각계의 지향과 요구에 대한 창을 수 없는 우통이며 외세와 공동모색하려며 북침전쟁을 기어코 도발하려는 용납할 수 할 범죄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세계에 계속 등을 헤쳐놓을수록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지 않고 통일을 부정하여 대결과 전쟁에서 살길을 찾는 저들의 반역적정책을 더욱 드러내놓게 될 것이다.

기회는 아무때나 찾아오는것이 아니며 기회를 놓치면 후회해 남는것이 있다.

남조선피의당국이 계획의 드물은 통일

얼기를 외면하고 반역적인 대미축종파 통족대결의 길로 계속 치우친다면 고집과 괴짜, 역사의 준엄한 실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누구도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루어려는 우리 겨레의 힘을 막아놓을 수가 없다. 조국통일은 학제로 남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남조선

은 거제와 국

제사회

의 강

한

화의

규

판

에

도

불

구

하

고

제

의

직

전

학

정

의

행

위

한

거

이

는

이

것

이

는

이

것

이

는

이

것

이

는

이

것

이

는

이

것

이

는

## 친미사대매국노들에 대한 분노의 폭발

성주군 주민들 과로국 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6시간 반 동안 역류하고 강력히 항거

히

항

거

를

집

중

국

민

족

의

정

치

행

위

한

국

민

족

의

정

치

행

위

한

국

민

족

의

정

치

행

위

한

국

민

족

의

정

치

행

위

한

국

민

족

의

히

항

거

를

집

중

국

민

족

의

정

치

행

위

한

국

민

족

의